

금괴를

WANTED



GOLDBAR

\$1,000,000,000

금 · 괴 · 를
찾 · 아 · 라

찾아라 !

The first part of the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structure of the data. This is particularly relevant in the context of machine learning, where the ability to identify patterns and relationships in the data is crucial for making accurate predictions.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 new algorithm for analyzing time series data. This algorithm is designed to be more robust to noise and to better capture the underlying trends in the data. The third part of the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series of experiments that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new algorithm to that of several existing methods. The results show that the new algorithm is able to outperform the existing methods in a number of key metrics, including accuracy and computational efficiency. Finally, the paper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the field of machine learning and for the development of new algorithms for analyzing time series data.

금괴를 찾아라

목차



금괴를 찾습니다	-----8
금괴를 잡아라	-----24
금괴의 정체	-----38
금괴가 집을 나간 이유	-----52
찬란히 빛나기 위해	-----74

1. 금괴를



찾습니다

GOLDBAR

\$1,000,000,000

금괴를 찾습니다!
실종묘: 노란 고양이/거대함
실종날짜: 00000000
긴급연락:00000000
현상금 금괴(10g)

만약 당신이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문구와 내용이 당신의 이목을 끌어당기고 당신의 머릿속에 파박! 하고 꽂힐까? 단언컨대 간절하고 강렬한, 그리고 다른 전단지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누가 자기 집 고양이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범죄자 찾는 현상수배지처럼 만들어 놓을까. 금괴를 찾습니다! 실종요: 노랑고양이, 거대함. 현상금 금괴. 태현의 얼굴에 보기 좋게 전단지가 철썩.하고 달라붙었다. 이게 뭐야! 태현은 허둥대며 얼굴로 돌진한 장애물을 떼어냈다. 금괴를 찾습니다? 진지함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애들 장난 같은 전단지였다. 어느 집에서 고양이를 잃어버렸나 보네 애구. 안타까워라. 사례금은.. 금괴. 그런데 10g은 뭐야? 이걸 금괴가 아니지 않나? 일반적인 전단지와는 달라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았다. 금괴로 사례한다는 건 또 처음 보네. 태현은 전단지를 대충 접어 가방 안에 구겨넣었다. 아무리 자신에게 쓸모없는 전단지는 쓰레기에 불과해도 길바닥에 버릴 순 없으니까. 안 그래도 늦어버린 약속 시간에 더 늦어서는 안 됐다.

‘이 근처인 것 같은데.’

태현은 한 손에는 철가루가 든 손난로를, 한 손에는 지도를 켜 휴대폰을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대학 합격 이후 만나는 고등학교 친구, 혜준과의 저녁 약속이었다. 혜준과 태현은 알고 지낸지 오래된 사이였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며 유치원부터 중학교 시절을 함께 했다. 그러나 공부를 특출나게 잘했던 혜준이 기숙사가 있는 특목고를 진학하며 자연스레 태현과 떨어지게 되었고 둘은 단짝에서 연락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적당히 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후 태현은

수능을 두 번이나 치게 되어 주변 친구들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었지만, 두 번째 수능, 즉 얼마 전에 있었던 수능을 준비할 때에 우연히 해준과 연락이 닿게 되어 해준에게 특별과외를 받게 되었다. 태현은 중국에 해준의 대학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태현에게 해준은 구세주였고, 아주 고마운 친구였으며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 해준과의 만남은 태현의 대학입학 축하를 겸했으며 태현이 해준에게 고마움의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준아 나 너 아니었으면 사수할 뻔 했잖아 진짜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찔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태현이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이다. 해준은 그런 소리 말라며 웃고 넘겼다.

“다 네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뭐. 축하해. 우리 학교 진짜 좋으니까 같이 재밌게 다녀보자.”

난 죽어도 학교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넓은데 내 못자리 하나 정돈 있겠지. 하하. 태현은 잔뜩 신이 나 말했다. 그렇게 태현은 해준과의 식사 내내 들떠있었다. 반면 해준은 어딘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았다. 태현은 어릴 적부터 남의 기분을 잘 파악했다. 눈치가 빠른 탓에 상대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무엇 때문

에 곤란해 하는지를 잘 추리해냈다. 태현이 생각하기에 해준은 지금 고민거리가 있다. 그것이 자신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추측했다. 태현은 패밀리레스토랑의 맛 좋게 볶아진 파스타를 돌돌 말다가 내려놓고 조심스레 해준에게 물어보았다.

“근데 해준아 너, 뭐 안 좋은 일 있어?”

볶음밥을 뜨던 해준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태현은 이 순간으로 전부 파악했다. 해준은 지금 모종의 이유로 기분이 좋지 않다. 그 원인이 궁금해졌다. 그리고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돕고 싶었다. 왜냐하면 해준은 자신의 은인이고, 친구고, 가족같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별 일 없어. 그냥 오늘 잠을 못 자서.”

태현이 추측하건대 해준은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한 태현은 괜한 오지랖을 부리지 않기로 한다. 해준은 이런 면에서 개인의 영역을 칼 같이 지켜내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아~ 역시 피곤해

서 그랬구나! 하긴, 종강했어도 과외는 계속 한다 했으니까! 태현은 급하게 대화 주제를 돌렸다. 분위기를 바꾸는 것, 이것도 태현의 특기였다.

“아줌마랑 아저씨 잘 계시지? 조만간 인사드리러 가고 싶은데. 왜, 나 수능 보러 갈 때 도시락 싸주시고 데려다 주셨잖아. 얼마나 감동이었는데.”

맞아. 우리 엄마아빠가 나 수능 칠 때만큼 신경 썼지. 네 도시락 메뉴 고르느라 혼났다. 해준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대화의 흐름이 해준의 가족에게로 초점이 맞춰졌다. 해준이, 그리고 해준의 부모님..여기까지 연상한 태현은 문득 해준의 누나, 혜령이 떠올랐다.

“그리고보니 혜령이는 잘 지내? 갑자기 궁금하네. 우리 초등학교 때까진 셋이 놀기도 했던 것 같은데.”

태현은 어릴적 기억 한구석에서 혜령에 대한 정보를 꺼내왔다. 해준이를 보면 자연스레 해준이네 부모님은 떠오르는데, 혜령은 그렇지 않았다. 해준과 혜령은 함께 연상되지 않았다. 그도 그럴게, 둘은 너무나도 달랐으니까.

해준의 가족 관계도는 이렇다. 평범한 회사원인 아버지와, 심리상담사인 어머니 그리고 이란성 쌍둥이 누나, 혜령. 태현은 해준과 어릴 적부터 친했지만 그

에게 해령은 내 친구의 가족에 불과했다. 지금은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예전에 친구 집에서 봤던 친구네 누나 정도였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태현이 해준의 집에 놀러 가면 셋이 곧잘 놀았던 것 같긴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태현이 느끼기에 해령은, 조금..

조금 특이했다.

해령이 눈에 띄는 외모를 가졌다거나,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 끌린다는 개념의 특이함이 아니었다. 항상 어깨에 닿을락 말락한 정도의 머리길리와 눈썹을 가린 앞머리, 작지도 크지도 않은 키를 가진 해령은 뭐랄까, 태현이 느끼기에 존재감은 없지만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령과 함께 했던 몇 없는 기억 중 하나가 태현에게 해령은 특이하고, 어딘가 이상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잘 섞이지 못했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기름 같은 사람이었다.

해준이 특목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인 중학생 시절까지도 태현은 해준네 집에 자주 놀러왔다. 학원에 가기 전 같이 간식을 먹고, 게임을 하곤 했다. 하루는 해준 집에서 시험 공부를 하기로 했었다. 해준네 집에 가는 도중 해준은 교실에 문제집을 놓고 왔다면 태현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라 했다. 해준이 없으면 해준의 집에 못 가는 것도 아니기에, 그리고 어릴적부터 들락날락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태현은 제 집 가는 것만양 해준의 집으로 향했다. 학교 정문을 내려와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십오분 정도 걸어가면 혜준이 사는 아파트가 나온다. 열심히 걸어왔는지 아파트 공동현관에 도달했을 땐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 송골 맺혀있었다. 말복이 한참 지났고, 지금은 9월 중순이지만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태현은 익숙하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혜준의 집은 10층 1004호. 20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태현은 오늘 혜준의 집에 시험공부를 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에 어떤 비디오 게임을 하고 놀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갔다. 1층입니다. 기계음이 들림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태현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10층입니다. 잠깐의 정적 후 또 다시 기계음이 들림과 동시에 문이 열렸다. 내리자마자 오른쪽으로 꺾어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저예요. 태현이!”

“.....”

어머 태현이 왔니, 들어와, 들어와. 원래대로라면 자신을 아들인 혜준만큼 반겨주던 수희였다. 하지만 태현은 평소와는 다른 수희의 반응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줌마 뭐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대답이 없으시네.

오면 안 됐었나,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즈음 빠리릭. 하고 문이 열렸다. 살짝 긴장한 태현은 한걸음 물러났다. 그러나 문을 열어준 것은 수희가 아닌, 혜령이었다.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친 태현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쳐지나갔다.

“어, 혜령이!”

태현과 혜준은 근처 공학 중학교로, 혜령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여자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같은 학교를 다녔던 초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서로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도 없었기에 오랜만에 보는 혜령은 태현에게 살짝 어려운 상대였으나 태현은 또래 사이에서 나름 사교성이 좋은 편이었다. 태현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혜령에게 불임성 좋게 굴었다. 눈이 휘어져라 웃고 한껏 반가운 목소리로 혜령을 불렀으나 혜령의 반응은 무안하리만치 미동도 없었다.



“뭐야?”

돌아온 대답은 딱딱한 두 글자뿐, 태현은 어쩐지 머쓱해서 활짝 폈던 오른손을 내렸다.

“아..오늘 혜준이랑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먼저 집에 가 있으라 해서..”

또래보다 불임성이 좋고 사교적이지만 태현도 어찌됐든 아직 중학생 어린아이일 뿐, 상대의 차가운 반응에 풀이 죽어 방금 전과는 달리 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티 내려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기가 죽은 모습이었다. 왜인지 모를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혜령은 들어오란 말도, 그렇구나-라는 예의상 하는 말도 없이 가만히 태현을 쳐다보다가 제 방으로 휙 들어갔다. 쫓아내진 않은 걸 보니 일단 들어가도 괜찮은 거겠지. 태현은 이렇게 생각하고 현관문을 닫았다. 매번 쉽게 들락날락했던 친구네 집 현관문이 이렇게나 무거웠던가. 비디오 게임의 가장 어려운 구간을 플레이한 기분이었다. 혜령이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아도, 혜령의 방문은 굳게 닫혀있어 혜령은 자신이 무얼 하는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현은 괜히 혜령을 의식했다. 혜령의 냉랭한 반응 때문이었는지, 태현은 혜령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태현은 가시방

석에 앉은 것처럼 안절부절 해준을 기다렸다.

이런 일이 있었지. 태현이 해령에게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억 중 하나였다. 이 일로 태현은 해령을 특이하다고 정의내렸다. 해령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해령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해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후, 해준의 낯빛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태현이 음료를 쏟는 바람에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최해령 뭐.. 그냥 지내지.”

“그래? 나중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태현은 냅킨으로 탄산음료를 닦으며 대답했다. 이거 테이블에만 쏟아서 다행이다. 그러게. 냅킨에 힘 없이 맥아리 없이 흡수되는 탄산음료처럼 해준이 빨지 못한 말도 목구멍으로 스며들었다. 음료 새로 하나 시켜야겠다. 여기 콜라 하나 더 주문할게요..

“오늘 재밌었다. 잘 들어가! 입학 전에 종종 또 보고.”

온전히 친구와 노는 데에 정신을 쏟은 게 얼마만인지. 간만의 심적, 시간적 여유를 만끽한 태현은 만족스럽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추운 날씨 탓에 숨털이 뽁뽁이 채워진 외투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어깨를 움츠렸지만, 추위조차도 즐거운 순간으로 남는 것 같았다. 태현은 들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괜히 발자국에 속도를 싣다가, 이내 활짝 웃은 채 아무도 없는 거리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자유가 이렇게나 소중하고 달콤한 것이었다니! 뭘 만큼 기쁜 게 이런 감정이었다니! 그리고 정확히 5초 후, 태현의 기쁨은 삼시간에 절망의 구덩이까지 추락한다.

“이거 완전히 깨져버려서 못 쓰겠는데요. 수리하는 것보단 새로 사는 게 나을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빛의 속도로 일어났다. 태현은 한겨울에 길바닥에서 기쁨의 질주를 하다가, 미처 얼어버린 아스팔트 도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미끄러져 자빠졌다. 머리를 다쳐 목숨이 날아가지나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휴대폰 하나 해먹은 게 목숨값이라면 싸게 먹힌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눈 앞이 캄캄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모아둔 돈으로 겨우 산 최신 휴대폰이었는데. 쓴 지 딱 한달 지났는데.. 지금은 형태를 알아볼 수조차 없어진 휴대폰 액정만큼 태현의 현실도 불투명해짐을 느꼈다.

“새 거 말고..중고로 사면.. 얼마인데요?”

“뭐.. 원하시는 기종에 따라 다른데, 손님 휴대폰이랑 똑같은 기종이면.. 이게 나온지 얼마 안 된 모델이다 보니까 거의 값이 똑같거든요. 중고 매물도 없을 테고.”

태현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지면이 발바닥에 딱 붙다 못해 머리 끝까지 빨아들이는 기분이었다. 똑같은 것으로 새로 산다면 대략 백오십만원 정도.. 백오십만원이면.. 꼬박 세달을 일해야 하는데.. 죽상으로 휴대폰 수리점을 나선 태현은 뉘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임시방편으로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써야 하나?

휴대폰 하나 좋은 걸 쓰지 않아도, 사는 데에 지장은 없다. 하지만 지금 막 입을 끝낸 태현에게 신문물이란 달콤한 유혹은 참을 수 없는 것과도 같았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정보의 바다에 질식해 죽고 싶었다.

그때, 태현은 뇌리에 강렬히 박힌 어떤 전단지가 자신의 가방 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떠올렸다. 태현은 재빠르게 가방을 뒤져 몇시간 전 구겨넣었던 전단지를 급하게 펴기 시작했다. 10g이면 얼마지? 태현은 집으로 향하다가, 금은방으로 다급하게 뛰었다. 저기, 금값 좀 알고 싶은데요,
금 10g은 대략..
백오십만원!

궁지에 몰린 쥐에게 한 줄기 빛 되는 돌파구가 생겼다.

2. 금 괴 료



잡아라

금과, 아니 그 누런 고양이를 찾으면 태현의 휴대폰값은 거저 먹는 것이나 다를 없었다. 태현은 나름대로 고양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계획을 세웠다. 집 나간 고양이를 찾는 방법 첫 번째, 전단지 속 사진을 자세히 본다...라기엔 뚜렷한 특징이 없다. 사진도 달랑 고양이 정면 사진 한 장뿐, 눈을 희번득 뜯다는 것 말고는 고양이의 세세한 외형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기각. 두 번째, 집을 나간 날짜를 본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다. 그렇기에 이 동네에서 집을 나간 것이라면 그리 먼 곳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실종날짜는.. 그것 또한 적혀있지 않다. 기각이다.

“뭐 이래?!”

보통, 기르던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정성스럽게 성의를 담아 간절히 찾는다는 전단지를 만들지 않나?! 우리 고양이는 뒷발에 점이 있다던가, 등쪽에 특이한 무늬가 있다던가, 아니면 더 정확한 생김새나 특징이라던가! 태현은 금괴를 찾는다는 전단지와 고양이 간식을 들고 동네를 돌며 불평했다. 고양이 주인되는 사람들.. 고양이를 찾을 생각이 있긴 한 건가? 자세히 보니 군데군데 열게 인쇄된 흔적이 보였다. 아마 가정집 프린터로 인쇄한 것으로 보였다. 자세히 들여다 보니 주인되는 사람의 연락처 또한 희끄무레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번호도 잘 안 보이잖아? 만약 잡으면 어떻게 연락하지? 이 전단지, 어쩌면 정말 애들 장난일지도 몰라..

골목길 모퉁이를 돌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회의감을 느낄 때쯤,

“어?!”

눈 앞에 누런, 황금색 털덩어리가 보였다. 내 휴대폰값이다! 금괴를 보자마자 태현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태현의 눈 앞에 거짓말처럼 금괴가 나타났다. 금괴는 태현은 뻔히 쳐다보았다. 틀림 없다.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고양이는, 사진 속 고양이와 같은 고양이였다. 아, 이 사람들 사진을 대충 넣은 게 아니라 적절히 잘 넣었네!

태현은 침착하게 숨을 골랐다. 고양이의 습성을 생각해보면, 반경 약 2미터 안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일단 가만히 멀리서 지켜보다가 천천히 거리를 좁혀야

해. 평소 알지도 못했던 고양이에 대한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차곡차곡 쌓은 태현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다. 고양이,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금괴를 응시한다. 그리고 눈을 느리게 감았다 뜨기를 반복한다. 이 행동의 의미는 고양이의 언어로 ‘난 너를 좋아해’라는 것이다. 태현은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즉 소통불가한 고양이라는 생명체에게 애정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금괴야~ 나를 보렴. 나를 봐 옳지. 난 네가 좋아. 착하지~ 자~ 이제 내가 준비한 간식을 먹겠니? 맛있겠지?

금괴는 태현을 뚫어져라 응시하다가, 천천히 태현에게 다가왔다. 태현은 숨을 죽이고 금괴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그래, 먹어라, 네가 간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하면 나는 너를 케이지 안에 넣고 안락한 네 집으로 돌려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현상금을 손에 넣게 되겠지.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데? 석 달 동안 편의점에서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 기쁨의 순간이 다가오기 무색하게.. 금괴는 모든 것을 눈치챘는지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다 잡았는데!

“안 돼, 거기 서!! 거기 서라!!!!!!!!!!”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다. 스무 살 언저리로 보이는 청년이 필사적으로 달리며 고양이를 쫓아가고, 고양이는 그런 청년을 아랑곳하지 않고 따돌렸다. 동네 놀이터를 헤집다가 빌라들 사이를 왔다 갔다 가로질렀다. 태현은 발바닥에 불이 붙도록 뛰어다녔다. 신발 밑창이 아스팔트 바닥에 갈려 닳는 것 같았

다. 저 고양이 녀석을 잡으면 그 돈으로 신발도 하나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삼수를 하며 제대로 된 운동 하나 못 하고 책상 앞에 하루종일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 문제집만 들여다보던 태현이 고양이라는 생물을 따라잡는다는 것은 무리였다. 태현은 점점 숨이 가빠왔다. 목에서는 쇠맛이 스멀스멀 올라왔고 다리는 굳기 시작했다. 폐 안으로는 차가운 겨울 공기가 가득 차 숨을 들이쉴 때마다 뇌까지 얼어붙는 듯 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두고 보자 이 망할 고양이 녀석!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린다면 이 험난한 세상 사는 것이 참 쉬울 것이다. 그래, 이렇게 일이 쉽게 잘 될 리 없지. 두 번째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접근하자. 고양이의 습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먼 곳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양이는 영역 동물.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생활한다. 그러니 금괴를 놓쳤어도 금괴는 이 동네 어딘가를 계속 돌아다닐 것이다. 태현은 다시 고양이 간식을 들고 금괴를 불렀다. 도로 옆 화단 쪽을 들여다보니 길고양이 급식소와 잠자리 같은 것이 보였다. 아, 이래서 이 근처에 나타났던 거구나. 그렇다면 금괴는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태현은 확신을 가지고 서성이기 시작했다. 이 추위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고양이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나올지, 편의점에서 가게를 보며 시급을 꼬박꼬박 받는 것이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태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괴를 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예측한대로, 금괴는 다시 나타났다. 태현은 어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

우리라 다짐하며 금괴를 유인했다. 금괴가 태현에게 가까이 와서 태현이 주는 간식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그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태현은 금괴를 잡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 눈치 빠른 고양이는 또 다시 태현에게 잡히기 직전, 썩하고 도망가버렸다. 고양이도 달리고, 태현도 달렸다. 불과 24시간 전과 같은 광경이었다.

그렇게 태현은 몇 번 더 금괴포획을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고양이 하나 잡는 걸로 돈 별 생각을 하다니, 이게 도둑놈 심보지.. 이게 그렇게 쉽게 될 리 없지.. 접자 접어. 태현은 속이 쓰라렸지만 최신형 휴대폰을 포기하고 삼년간 써오던 구식 휴대폰을 사용하며 돈을 모으기로 마음 먹었다. 세상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잔뜩 존재하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그것일 뿐이다.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마음을 먹은 지 일주일 후, 태현의 발 앞에 금괴가 스스로 굴러들어왔다.

고양이 뒤통무니를 쫓아다니기를 포기한 후 태현은 일상을 살았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간간히 친구를 만나고, 집에서 뒹굴뒹굴 놀고..평소와 다른 없는 하루의 시작으로 산책을 가는 길이었다. 금괴를 처음 봤던 골목에서 태현은 금괴를 다시 만났다. 하지만 금괴의 상태가 어쩐지 좋지 않아보였다. 자세히 보니 몸에 상처가 군데군데 보였다. 아마 다른 고양이들과 영역 싸움이 났으리라. 태현은 지나치려 했지만..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라 약 바르고 잘 쉬면 나을 거예요.”

태현은 아픈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 해도. 동물을 딱히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을 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일단 최소한의 도움은 주고 보는 것이 이태현이라는 사람이었다. 금괴를 잡는다는 목표는 달성했으나 주인에게 연락할 특별한 방도가 없는 현재, 태현은 금괴를 자신이 돌봐주어야 한다는 선택지를 골랐다. 길고양이인가요? 네? 아 아뇨..그럼 키우는 고양인가요? 네? 그것도 아닌데..음..

“고양이 임시보호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에 군식구가 생겼다. 태현은 침대에서 파리를 틀고 곤히 자는 노란 털뭉치를 보며 생각했다. 저 똥똥이..한 달에 사료값은 얼마나 들지? 모래며 화장실, 장난감도 사줘야 할 테고, 찾아보니까 간식도.. 이런 부수적인 것 뿐 아니라 가장 큰 관건은 병원비인데..애네도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하고 예방접종 같은 거 맞는다 했던 것 같은데..

병원비보다 임시보호에 필요한 사료와 모래값, 화장실 등등을 산 비용이 더 나왔다. 태현은 오늘 쓴 돈을 생각하며 고양이 주인을 만나면 자신의 휴대폰값 뿐 아니라 신발값, 그리고 고양이 용품값도 받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일전에 시

간을 죽이기 위해 보았던 인터넷 글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태현은 고양이에 관심 없었으나 태현의 알고리즘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에 알게 되었던 정보들이었다. 그래 봤자 어렵פות이 기억하는 정도라 정작 기억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는 선불리 다가가면 안 된다는 것뿐이었다. 태현이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도, 태현의 가족들은 반대하지 않았다. 애시당초 부모님이란 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태현의 부모님에게 집은 잠시 눈만 붙이는 장소였다. 아마 태현이 집에 털동물 하나쯤을 데려온 사실도 모를 것이다. 만일 데려온 것을 알게 되어도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라는 식의 태도로 나올 것이다. 태현의 부모님은 자식이 데려온 고양이 하나에 관심을 쏟을 만큼 시간과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태현은 자신이 데려온 이 노란 털멍치를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책임져야 했다. 덩치를 보니 꽤 많이 먹을 것 같았다. 벌써 어깨 한쪽이 무거워진 기분이었다. 야, 넌 사람보다 몸도 작은 게 어떻게 내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이 잡아먹는 것 같냐? 어찌나 깊게 잠들었지 눈 흰자가 보이도록 꿀아 떨어진 노란 털멍치를 보며 투덜댔다. 그래도 버겁진 않았다. 태현의 마음 한구석에서 온기가 피어올랐다. 열심히 돈을 벌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애 이름은 뭘로 지어주지?”

언제까지나 야, 고양이, 야옹아 라고만 부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한 지붕 아래에 사는데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보자..내가 이 씨고 이태현이니까..”

태현은 팔짱을 끼고 끄응 소리를 내며 고민했다. 미간이 깊게 패이도록 찡그렸다.

“이태리?”

이태리라는 이름을 듣자, 고양이는 게슴츠레 뜨고 태현을 한심하게 쳐다보았다.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반응할 리는 없지만, 마치 그게 최선이냐?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이발소?”

최악의 작명センス였다.

장난이야 장난, 아니면 너는 노란색이니까.. 이황 어때 누를 황□ 써서 하하. 퇴
계 이황처럼 크게 되라는 이름이지 나는 검을 현 너는 누를 황 하하.

정말 끔찍했다.

스스로 말하고도 어이가 없었는지 태현은 깔깔 웃다가 다시 진지하게 생각했
다.

“그냥 야옹이라고 불러야 하나? 어차피 넌 너희 집으로 돌아갈 테고..근데 금괴
는 좀 웃기지 않아? 너 이름이 진짜 금괴야?”

태현이 킁킁거리며 말했다.

고양이는 태현을 깜빡깜빡 쳐다보았다. 마치 말을 알아듣는 것만 같았다. 너 사
실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듣지? 고양이는 다시 눈을 깜빡깜빡거리다가 자는 척
을 하기 시작했다. 느릿느릿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고양이를 뻔히 구경하니 태
현도 졸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살다 살다 동물병원도 가보고..안 사

던 물건들도 잔뜩 사보고..그리고..

“누군가랑 침대 위에 누워도 있어보고..”

고양이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면 안 되었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거리를 좁혀야.. 이전에 인터넷에서 본 고양이와 친해지는 법을 하나씩 상기시키던 태현은 스르륵 노란 고양이 옆에서 잠들었다. 영하의 날씨가 유독 따뜻하게 느껴진 것은 혼자만 있던 방에 제3자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 체온보다 약 4도 높은, 털 덩어리 생물체가.



수의사 말대로 고양이 몸에 있던 상처가 금방 아물기 시작했다. 큰 상처가 아니기도 했지만, 태현이 꼼꼼히 신경 썼던 것도 한 몫 한 것이다. 고양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어슬렁 어슬렁 걸어다녔다. 병원에서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는 수의사의 소견이었다. 태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중에 네 주인을 만나면 병원비도 전부 청구할거야. 태현은 케이지에 고양이를 넣고 양손으로 플라스틱 가방을 포옥 안은 채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 꼴은 남이 보면 케이지 안에 금괴라도 들은 줄로 알 것 같았다. 금괴가 들어있다면 들어있는 것도 맞지만!

너를 내 집에 들이는 건 어디까지나 임시보호차원이야. 이 엄동설한에 너를 내 보낼 순 없는 거고, 그리고 네 주인을 찾으면 나는 그만큼의 돈을 받을 거고. 태현은 혼자 궁시렁 거리며 집에 돌아왔다. 통명스럽게 말했지만, 6킬로그램의 생명체가 주는 온기는 생각보다 매우 따뜻했다. 그 작은 온기가 집 안을 채우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른 봄이 오는 것 같았다.

3. 금괴의 정체



“혜령이..다시 돌아오긴 하겠지? 지금이 더 귀여워서 좋긴 해도.”

수희가 걱정스레 말했다.

“이걸 데리고 병원에 가볼 수도 없고 답답한 노릇이네. 어쩔 수 없지. 일단 데리고 상황 좀 보자고.”

“혜령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지 않나? 고양이한테 사람 이름은 좀..”

“이참에 이름 하나 지어주지, 뭐.”

어디 보자.. 누렁고..커다랗고..눈은 번쩍번쩍 빛나고..노랑고..거대하고..눈이 반짝반짝 빛나고..빛나는..

“이거 꼭 금덩이 같은데! 금괴라고 부르자. 금이랑 고양이. 고양이 괴. 금고양이라는 거지 어때? 돈 잘 벌어서 줄 거 같은 이름 아냐?”

하하하하하- 라며 문준은 호탕하게 웃었다. 50대 아저씨 머리에서 나올 법한, 정말 고전적이고 직관적인 작명센스였다. 수희와 혜준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다가 아무렴 어떠냐며 고양이의 작명권에서 손을 놓았다. 그렇게 혜령은, 터무니 없는 이유로 금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가족이 던진 사과에 맞아 죽은 바퀴벌레와 달리 혜령은, 행운아였다. 가족들이 내가 혜령이란 것도 알아보고, 밥도 챙겨주고 돌봐주니까.

증상의 시작은 청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것이었다.

“안 먹을래. 졸려서 못 먹겠어”

오후 12시 해가 중천에 뜬 시각, 수희의 불호령에 겨우 일어난 혜령은 쾅한 눈으로 느릿느릿 말했다. 맥아리 없이 손가락질을 몇 번 하더니 이내 손을 식탁 밑으로 내려놓는다.

“밤에 매일 늦게 자고 해가 중천에 뜰 때 일어나니까 그런 거겠지.”

안 넘어가면 먹지 마. 너 이거 오늘 저녁이야. 수희는 혜령의 밥그릇을 치우며 말했다.

“그게 아닌데..”

혜령이 넌 생활리듬을 맞추는 필요가 있어. 옆에서 문준도 한 마디 던졌다.

“그치만 밤에 일찍 자려고 누우면 거슬리는 소리가 잔뜩 나서 잠이 안 온단 말 이야.”

“애가 또 이상한 소릴,”

“나 그냥 병원 가보면 안 돼? 약이라도 먹고 폭 자고 싶은 심정이야. 밤에 잠을 통 못자니까-”

혜령이 힘 없이 말했다.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 부작용 있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안 좋고. 그리고 내가 볼 땐 네 마음 먹기에 달렸어. 몸 좀 움직이고 햇빛도 보고 그러면 밤에 아주 순식간에 꿀아 떨어질걸?”

문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농담조로 넘기며 말했다. 혜령은 작게 한숨을 내쉬 후 지난밤 충분히 채우지 못한 수면량을 채우러 어기적 어기적 방으로 들어갔다.

혜령은 최근 깊은 잠을 못 잤다. 정확히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걸 보니 사실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됐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혜령은 청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었다. 이것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제법 오래됐음을 혜령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암막커튼을 꼼꼼히 친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왼쪽 옆으로 눕는다. 이때 베개와 머리 사이에 이불을 둘둘 말아 끼워넣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혜령은 자신의 심장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혜령은 숨소리를 죽여 잠을 취하려 시도했다. 그런데..

[illegible]

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
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
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
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
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
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
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
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
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
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거슬러,

모든 소리가 거슬러. 아빠랑 최혜준이 대화하는 소리가 거슬러. 엄마까지 셋이
얘기하면 미칠 것 같아. 소리가 너무 많아. 목소리가 웅웅 울리는 게 기분 나빠.
진동이 몸을 때리고 가는 것 같아. 밖에 오토바이가 부아아앙 지나가는 소리가
싫어 경찰차인지 구급차인지 소방차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뽀뽀 지나다니
는 소리가 짜증나. 윗집에서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가 싫어. 짹짹 시계소리
가 거슬러. 우우우웅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가족들이 손가락을 달그락거리는
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충전기에서 전류가 치지직 흐르는 소리, 미세하게
들리는 내 심장소리, 공중에서 들리는 치지직 백색소음까지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 이 많은 소리를 다 들으니까 미칠 것 같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혜령은 눈을 뜨고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눈을 감으면 오감 중 하나가 차단된

다. 그래서 더욱 청각이라는 감각에 집중 되었다. 눈을 뜨면 한결 나왔기에, 명령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다.

“잠 좀 자자고....”

두 번째 증상은 후각이 예민해진 것이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혜령이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다.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옷에서 이상한 냄새 나.”

빨래가 덜 말랐나? 어디 봐. 수희는 혜령이 든 바지를 잡아 냄새를 맡았다.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무슨 소리니. 아니야 엄마, 시큼하고 빨래 덜 마른 냄새 나잖아. 안 난다니까. 여보, 이거 냄새 좀 맡아봐. 이상한 냄새 나? 옆에 있던 문준도 수희의 말을 듣고 냄새를 맡아봤다.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애가 정말. 거봐. 멀쩡하잖아. 코는 쓸 데 없이 좋아가지곤. 수희는 궁시령 거렸다. 분명 냄새가 나는데, 혜령은 미칠 것 같았다. 기분 나쁜 악취가 내 옷에서 난단 말야. 혜령이 악취를 느낀 건 비단 옷 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퀴퀴한 냄새 때문에 신경이 더욱 예민해졌다. 혜령은 하루에 세 번씩 머리를 감고, 바디타올에 바디워시를 잔뜩 짜 거품을 가득 내었다. 올해 여름이 유독 덥다면 그건 아마 수질을 오염시킨 혜령의 땀도 조금은 있을 것이다. 혜령은 몸을 박박 문질렀다. 피부가 벗겨져라 문질렀다. 목욕 후엔 바디로션을 손에 가득 짜 몸에 퍼부었다.

그래도 혜령은 악취에 시달리는 것만 같았다.

혜령도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그런 것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어딘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는 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혜령은 자신의 몸에 노란 털이 빼곡히 자라나는 꿈을 자주 꾸게 되었다. 처음에는 개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잠에서 깬 직후 팔에 돌아있는 노란 털이나, 얼굴에 보이는 수염자국 같은 것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긴 했지만, 자신이 노랑개염색한 머리카락을 보고 착각한 것이고 베개에 눌린 자국을 수염자국이라고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자주 보이게 되었고, 혜령은 정말로 자신이 미치기 직전이라 확신했다. 병원을 가야겠어.

그리고 어느날 아침, 혜령은 완전히 고양이가가 되어 있었다.

혜령, 아니 금괴의 하루는 이렇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난다.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 그 다음은 앞다리를 한껏 쭈우욱 앞으로 뻗고, 뒷다리를 한껏 쭈우욱 뒤로 뻗으며 기지개를 켜 뒤 어슬렁어슬렁 침대에서 내려와 밥그릇을 확인한다. 먹다 남은 사료가 있으면 그걸 먹고, 사료 한 톨 없이 밥그릇이 깨끗하면 수희를 향해 애웅애웅 운다. 금괴의 울음소리를 들은 수희는 사료통에서 사료를 퍼준다. 그렇게 금괴는 수희가 차려놓은 A사료를 와그작와그작 씹는다. 사람일 때는 귀찮게 메뉴를 바꿔가며 삼시세끼 배를 채워야 했는데, 사료 하나로 끼니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제법 편리하다고 생각한 혜령이었다. 위장을 건사료로 채운 뒤 금괴는 집안을 어슬렁거리다가, 뜻하게 데워진 식기건조기 위에 올라간다. 수희는 털 날린다는 이유로 금괴가 주방에 얼정거리는 것을 매우 싫어했지만, 금괴는 꽤넘치 않았다. 폴짝 뛰어오른 식기건조기 위에서 잠시 줄다가 다시 사료를 먹고, 텔레비전 뒤에 갔다가, 커튼 뒤를 헤집는다. 먼지 때문에 코와 목이 칼칼해지면 동그란 유리그릇에 담긴 투명한 물을 열심히 들이킨다. 코와 입주변에 묻은 물방울을 혀로 깨끗하게 핥은 후, 해가 드는 소파에 자리 잡는다. 앞다리 두 개를 접어 배 밑으로 두고 식빵자세를 취한 뒤 금빛 털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의 온기에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따분하리만치 평화롭고, 반복적인 일과다. 마치 하나의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는 것 같았다. 고양이가 된 후의 삶은 좋았다. 사람 뿐인 이 집에 나 홀

로 다른 존재고, 성대를 굽어 입 밖으로 소리를 내며 소통하지 않아도 된다. 매우 편리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잠을 자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털동물의 귀여운 외관을 하고 있으니 문준과 수희 또한 원하는 요구를 더욱 쉽게 들어주는 경향도 있었다. 좋은데? 고양이들은 모두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이거 진짜 상팔자다..그리고 무엇보다..

“금괴야~”

라고 상냥하게 불러주는 수희와 문준이 좋았다. 하루종일 주물럭 대고 달라붙는 건 조금 귀찮지만. 아니, 사실 귀찮지 않았다. 문준과 수희가 제 볼에 대고 볼을 부비거나, 숨 막히도록 꽉 끌어안을 때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간만에 받는 일방적인 애정이 너무나도 달콤했다. 마치 뭘 해도 귀엽고 예쁘다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던 일곱 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아아 행복하다, 사람으로 살 때보다 행복하다니, 인간의 삶은 어찌면 그리 대단한 게 아닐지도 몰라. 이미 내 머릿도 고양이만큼 작아진 건가?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줄어들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진 건가.. 아무래도 좋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뭐라고?”

얼음이 반쯤 녹은 음료수를 마시던 태현이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재차

묻는 듯 말했다.

“혜준아 너 어디 아프냐?”

“건강한데”

“네 누나가, 그러니까 혜령이가 고양이가 됐다는 걸 나더러 믿으라고? 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아 배아파..미쳤어. 공부하다가 돈 것 같다. 병원 가봐라, 너.”

“안 미쳤어! 진짜라고,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

진지하게 화내는 혜준을 보고 태현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혜준은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된 지는 좀 됐어. 그리고 얼마 전에..집을 나갔거든. 전단지 붙이면서 찾고 있는데 도무지 찾아지질 않아서..”

“그래, 어떻게 생겼나 사진이나 보자.”

혜준은 제 휴대폰 사진첩을 열어 금괴의 사진을 찾기 시작했다. 애시당초 혜준과 혜령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혜준의 휴대폰에 혜령의 사진, 심지어 고양이가 된 혜령의 사진이 있을 리가. 혜준이 혜령의 사진을 찾는 동안, 태현은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느꼈다. 금괴, 내가 저번에 얼핏 보고 버렸던 것 같은 전단지, 노란 고양이, 혜준이네 고양이, 누나, 혜령이..

“아, 찾았다. 이렇게 생겼어.”

여기까지 생각이 닿은 순간, 혜준이 태현에게 금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자신의 집에 있는 노란 고양이였다.

4. 금과가

집을



나간

이유

태현은 성숙하고 어른 같았다. 그리고 특유의 털털함과 구김살 없는 성격은 누구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사람들의 호감을 쉽게 살 수 있었다. 이것은 태현의 가장 큰 강점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약점을 가리는 방어막이었다.

태현의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로, 태현은 어릴 적부터 줄곧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해준의 가족이 태현을 챙겨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태현은 해준과 해준의 가족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했다. 가족의 부재로 인해 생긴 커다란 구멍을 해준이와 해준이의 부모님이 채워주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맞지 않는 틀에 억지로 다른 조각을 옥여넣는 것과 같음을 깨달았다. 태현이 아무리 해준네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들, 태현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는 없었다. 이 불변의 법칙을 깨달은 것은 초등학교 4학년, 참관 수업을 마친 후 해준의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올 때였다. 수희는 태현

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태현은 감사 인사를 한 후 수희의 차 문을 닫았다. 그리고 떠나가는 수희의 차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혜준이는 엄마랑 집까지 같이 들어가겠지. 아줌마는 혜준이한테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수다 떠실 테고, 그리고 혜준이는 집에 가서 아줌마가 만들어주는 간식을 먹고..

여기까지 생각이 닿은 순간, 태현은 자신도 모르게 혜준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가장 가깝고, 가족 같은 친구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이 사실은 온전한 우정과 애정이 아님을 알게 된 태현은 혜준과 혜준의 가족을 향한 죄책감이 피어올랐다. 태현은 재빠르게 이 감정을 묻어두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시켰다. 아무리 내가 혜준이네를 가족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남남이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만 가지자. 사실 문준과 수희도 태현을 ‘아들처럼’ 생각할 뿐, 진짜 아들이라고는 여기지 않았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태현은 이 사실이 이따금씩 서글프게 다가왔다.

이런 태현은 마음 한구석에 항상 가족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집에 오면 나를 반겨주고,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일상을 보내고..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부대끼고 사는..그런.. 그러려면 나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나? 하지만 태현은 가정을 꾸리고 싶진 않았다. 받아본 적 없는 애정을 어떻게 알고 베푼단 말인가. 미래의 배우자와 아이에게 할 짓이 못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정이 아니어도, 그저 내 옆에 있어줄 존재가 있다면..그거 하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존재가, 태현에게 나타났다. 노랑고, 커다랗고, 털 새 없이 금빛 털을 날리는 고양이. 갈 곳 없는 처지가 불쌍해보였다. 혼자인 것을 보니 자신과 비슷한 꼴 같아 마음이 쓰였다. 하지만 데려오려 하진 않았다. 오랜기간 메말랐던 태현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금빛 고양이는 태현을 선택했다. 제멋대로 따라 들어오고, 자신에게 편히 털 집과 배불리 먹을 것을 요구했다. 태현은 전부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스스로를 타협했다.

“야옹아 나 왔어.”

노란 고양이는 마중 나오지 않는다. 언제나 그렇듯 태현의 침대 정중앙에서 식빵처럼 앉아 졸다가 태현이 돌아오면 눈을 꿈뻑 거린다. 태현은 그래도 좋았다. 눈을 꿈뻑 거린다는 건 고양이가 하는 애정표현이었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고양이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까지 해왔던 가족놀이가 전부 가짜가 되는 것 같았다. 태현은 졸고 있는 고양이 앞에 앉았다. 그리고 고양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나 오늘 말도 안 되는 얘길 들었는데.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개네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렸대. 가출했다나.”

“근데 그 고양이가, 자기 누나래.”

째깍째깍.

사람의 말에 대답이 돌아올 리 없었다. 그도 그렇게 태현은 눈 앞의 노란털멍치 고양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으니까. 태현의 독백이었다. 여기까지 말한 태현은 혼자 웃기 시작했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우스웠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아무리 혜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해도 혜준이의 누나-혜령이 고양이가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알았어?”

고양이가 말을 했다. 태현은 얼어붙었다.

“고..고양이가 말을..”

“뭘 그리 놀라?”

“놀라는 게 당연하지! 그럼 네가 정말 혜령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을 것도 없지. 사과에 맞아 죽은 바퀴벌레도 원래는 사람이었잖아.”

“그건 소설이고!”

줄곧 키워온 고양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정 붙인 털뭉치가 사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맥이 탁 풀렸다. 믿겨지지 않지만 믿을 수 밖에 없었다. 눈앞의 고양이는 태현과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는 충분히 사람이 고양이가 되었다는 허황된 가설을 진실로 만들어주었다. 멈춰있던 태현의 사고가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혜령이고..혜령이를 집에 돌려보내면 나는 돈을 받을 수 있어.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일이 이렇게 되네. 그런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존재에게 끌린다. 태현은 절뚝거리던 노란 고양이를 본 그날, 저도 모르게 고양이와 자신이 닮았다고 생각해버렸다. 혼자가 아닌데 혼자이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데에 필사적으로 굴지 않았다. 주인의 정확한 행방을 모른다는 핑계로 고양이를 데리고 있었다. 시간과 돈을 쏟아야하는 대상이 있다는 번거로움이 생겼어도 나쁘지 않았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태현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사례금으로 살 휴대폰도 신발도 아닌 제3자의 온기였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줄 알았던 존재가, 그래서 애정을 쏟고 소중히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과 가장 다른, 이미 충분한 애정을 받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사랑은 부수적으로 여길 수 있는 존재였다. 태현의 세상 일부가,아니..

대부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헤령아, 돌아가.”

“싫어.”

“왜? 너네 집 있잖아.”

“여기가 더 재미있어.”

“너희 집으로 돌아가. 이제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싫다니까! 그런 집으로 내가 왜 돌아가야 하는데!”

“아줌마랑 아버지한테 연락 드릴게. 데리러 오실 거야.”

“싫다고!”

혜령은 태현의 휴대폰을 낚아채려다 태현의 손을 할퀴었다. 상처가 꽤 깊었다.

뚝뚝 피가 흘렀다. 혜령은 당황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미안해 할퀴려던 건 아니고 네가 먼저-”

“야!!!”

태현이 무너졌다. 줄곧 참아온,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쌓인 감정이라는 지층의 붕괴가 일어났다. 해령과는 관련 없는 일조차도 터져 나오는 것을 알았다. 태현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 일조한 대상을 굳이 찾으려면, 태현의 부모와 혜준임을 태현도 알지만, 통제할 수가 없었다.

“배부른 소리 하지마! 집에 가기 싫다고? 그런 집? 너네 가족 만큼 행복한 집이 어딴데?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걱정해주고, 끼니를 챙겨주고, 가족여행도 다니고, 딸아들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놀게 해주는 부모님이 흔하냐고! 넌 유치원 끝나고 다른 애들 엄마아빠 손 잡고 집 갈 때 혼자 집에 돌아가는 기분이 어떤지나 알아? 초등학교 참관 수업 때면 뒷문 힐끔거리다가 실망해 본 적 있어? 없겠지. 너희 엄마 항상 오셨으니까. 중고등학교 담임 상담에 부모님이 오지 않은 적은? 없잖아!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자랐으니까 지금 집이 싫다는 철 없는 소리 하는 거잖아! 난 네 뒤늦게 온 반항기에 시간 내줄 여유 없어. 정신 차리고 돌아가!”

속사포로 쏟아진 태현의 울분이 멎은 후 다시 숨 막히는 정적이 찾아왔다.

“네가..”

혜령이 입을 열었다.

“네가 뭘 안다고..”

혜령은 말하기 시작하다가,

“아냐.”

한마디를 뱉은 후 뛰쳐나갔다.

아차, 싫은 태현은 혜령을 불렀으나 혜령은, 노란 고양이는 현관문 밖을 나섰다. 태현은 급하게 슬리퍼를 구겨 신고 뒤쫓아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무작정 나갔다.

자상한 아버지와 유쾌한 어머니, 그리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예의바른 아들. 혜령의 가족은 제 3자가 보기에 이상적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목한 가정이었다. 혜령의 부모님은 혜령을 먹이고 입혔으며, 학원에 보내고 입시를 준비 시켰다. 혜령의 부모는 혜령에게 최소한의 부모로써 할 일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상적이고 따뜻한 집 안에서, 혜령은 충분히 등 따습고 배불렀을 텐데. 안전하고 아늑한 온실이 따로 없었을 텐데.

그런데 혜령은 어쩌서 집을 나갔을까?

혜령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수희와 평범한 문준 사이에서 난, 아주 당연한 결과였다. 혜령은 자신이 평범하다는 데에 불만이 없었다. 평범하다는 건 좋은 거야. 남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나 평범한 혜령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혜준은, 혜령과 달리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혜준이 특출난 기인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혜

준은 머리가 너무 좋았고,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성적을 냈을 뿐이다.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던 것이었다. 4살 최혜령이 찰흙을 가지고 놀 때, 4살 최혜준은 구구단을 외웠다. 최혜령이 한글을 겨우 겨우 외울 때, 최혜준은 한글 뿐 아니라 알파벳까지 익혀 애플, 이라는 단어를 읽는 위업을 이루어내셨다. 평범한 집안에서 아들이 공부 잘해서 좋겠어.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소리를 들은 수희는 혜준이 그렇게 예뻐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수희가 혜령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수희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혜령이 느끼기에, 근거 없는 소외감이 있지 않았다.

혜령은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혜령과 혜준을 비교 선상에 두었다. 쌍둥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다는 불평등한 경주를 보며 광분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었다. 그런 그들이 범재와 천재를 비교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혜령은 스스로 이를 자신의 웃긴 점으로 삼기도 했다. 나는 혜준이랑 달리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건 잘 못해. 아 나도 머리 좀 좋았으면!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혜령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좀 먹기 시작했다. 혜령은 점점 틀어박히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세상과 자신 사이에 선을 그었다.

예전엔 혜령을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어느순간부터인가 사라졌다. 아, 개네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내 친한친구..누구였더라?지민이? 이런 이름이었는데.. 요즘엔 왜 연락 안 하지? 맞다, 내가 끊었었지..

혜령에게는 자기 자신도 돌볼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타인이 두려웠으며 타인은 혜령에게 뱃속에 든 돌덩이처럼 다가왔다. 혜령은 그렇게 고립되어 갔다.

“나,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무력함에 눌러있던 혜령이 선택한 어떠한 선택이었다.

아르바이트? 다섯글자를 듣자 식탁이 조용해졌다. 3초 밖에 안되는 순간이었지만, 혜령에게는 이 적막이 삼천년처럼 느껴졌다.

“내 또래 애들은 다 하고, 또 나도 대학생이니까 돈 벌면서..”

먼저 입을 연 것은 문준이었다.

“우리 딸, 그런 생각을 하고 멋진데? 무슨 아르바이트 생각 중이니?”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에 혜령은 안도했다. 그리고 어쩐지 들떠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응,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건 편의점 아르바이트고, 간간히 식당 서빙도 있고 아,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도 있어. 그리고 카페도 음료 만 들면 재미있을 것 같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몸 쓰는 일을 한다고 그래.”

수희는 혜령의 말을 가로챘다. 문준과 수희는, 아닌 척 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들을 좋아했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동네 등등.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대부분은,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 인류 대부분이 더 좋은 것과 더 높은 지위를 원할 것이다.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욕망이다. 하지만 이것들을 원할지언정,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돈은 많을지언정

내면적으로는 빈곤한 사람이 될 테니까.

문준과 수희는 해준과 해령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엄마아빠는 너희가 무슨 인생을 살던 상관 없어, 너희 인생이니까. 공부를 못 해도 괜찮고 어느 대학을 가도 괜찮아. 나중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인생의 전부 는 공부도 돈도 아니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단다.

해령은 이 말을 철썩 같이 믿었다. 하지만 머리가 클수록, 해령은 부모님이 했던 말은 진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분명 이 존재한다. 이미 본인들 마음 속에 그리고 있는 자식의 상이 뚜렷이 있다. 그래서 괴로웠다. 그들이 암묵적으로 정해둔 틀에서 벗어난다면 무언가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해령은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도 전에 관두었다.

해령은 공부에 영 재능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해야하지만, 문제를 읽고 정해진 답을 고르는 것보다는 자신의 손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다. 경쟁도 좋아하지 않고 뻣뻣한 것은 더욱이 싫어했다. 해령은 자신의 세계에서 그곳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길 원했다. 내가 전교에서 몇 등을 하던, 내 앞에 몇 명이 있고 내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가던 상관없어. 엄마아빠도 이렇게 말했으니까. 해령은 이렇게 생각했다.

반대로 해준은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다. 문제를 읽고 답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맞춘 지식들이 숫자로 나타날 때에 희열을 느꼈다. 성적표에 자신의 뒤에 몇 명이 있는지 찍혀있는 숫자를 볼 때 느껴지는 짜릿함을 위해 해준은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리

는 것을 즐겼다.

혜령과 혜준은 이렇게 너무나 달랐다. 혜령이 혜준에게 불만을 느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비교의 말이 혜령을 좀먹어갔다. 혜준 또한 미성숙했다. 자신이 혜령보다 뭐라도 되는 기분에 휩싸여 혜령을 무시하곤 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 둘의 골은 깊어져 갔으며 끓았던 상처는 어느날 아주 갑자기 터져버렸다. 혜령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불뚝이 혜준에게 튀어버린 것이다. 혜령과 혜준은 서로 대화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지 꽤 오래되었다. 그리고 이 냉전이 지속되다가, 어느날 화산 터지듯 분화해버렸다.

“너희 둘 언제까지 이렇게 삭막하게 살 거니.”

“같이 사는 엄마아빠 마음도 생각해. 계속 이렇게 살 거면 나가던가.”

“싫어.”

“그럼 예전처럼 잘 지내봐.”

“싫어.”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뭐가 그렇게 싫니? 혜준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 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최혜준이 밤에 쿵쿵 걸어다니는 게 싫어. 큰 목소리로 찌렁찌렁 울리도록 말하는 것도 싫고, 공부 좀 했다고 좋은 학교 들어간 걸 인생 최대의 업적으로 여기는 것도 싫어. 그리고 그렇게 잘난 학교의 학생인 내가 하는 말은 다 맞고, 내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멍청해서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 태도도 토 나와. 그리고 뭐, 잘생겨? 웃기지 마 제발.. 그 갸름은 왕자병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 못생겼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안 잘생겼다고. 못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겼어! 나만큼이나 평범한데 다들 뭐라는 거야. 옷 하나 멀끔하게 입은 걸로 그 집 아들은 흰칠해서 엄마아빠가 좋겠다는 소리 듣는 것도 싫어. 다들 눈이 없어? 머리에 달린 건 눈구멍 두 개야?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랑 최혜준을 비교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엄마 아빠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같은 자식이고 누구 하나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하는 걸 보면 전혀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너한테 안 해준 거 있어? 하지 말라 한 게 있니? 너도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필요하다는 거,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줬잖니.”

“다 해줬다고? 정말 다 해줬다고? 엄마는 나랑 단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해놓고 매번 돈 얘기 하잖아. 여긴 비싸니까 가지 말자 다른 데 가자 하잖아. 매번 나랑 뭘 할 때마다 돈 아끼려고 하잖아. 아빠도 똑같아. 아빠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건 힘쓰는 일이라 네가 하기 어려울 거다, 이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일이라 공부하기 싫어하는 네가 하면 힘들 거다, 또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매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어려울 거다 했잖아. 근데 뭐? 다 해줬다고? 다 해줬지! 삼시세끼 안 굶게 해주고 아르바이트 할 필요 없이 용돈도 주시고! 기숙사 살아서 교통비도 필요 없을 최혜준보다 두 배 적게 줬지만!”

“너 미쳤어?”

“그래! 미쳤어 미쳐서 지금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잖아!”

악을 쓰며 소리지르는 혜령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문준은 입을 열었다.

“혜령아, 진정해. 지금 네가 흥분해서 판단이 안 되나 본데, 너는 엄마 아빠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 혜준이에게 화풀이 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에게 불만이 있다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맞지.”

혜령은 말문이 막혔다. 히, 한숨을 쉬고 입을 닫았다.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왜 맨날 나에게만 책임을 묻고 귀찮은 일은 날 시키냐고 했을 때 혜령이가 믿음직하니까.라면서 대충 대답했잖아. 불만을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잖아. 그냥, 그냥 개가 짖는 것처럼 무시했잖아. 그리고 내가 왜 최혜준이랑 사이 좋게 지내야 하는데? 재도 나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사람 깔보는 게 느껴지는데 사이 좋게? 말이 되는 소릴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평화롭게 노력한 건데. 나는 항상 얘기했는데, 좋게 좋게 얘기했는데 안 들은 건 너네잖아.....

혜령은 차마 마음 속에 쌓인 말을 할 수 없었다. 말한다면, 자신이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추방 당할 것 같았다. 아니, 직감으로 확신했다. 그래서 혜령은 다시 침묵을 선택한다.

“네. 죄송해요. 앞으로 속 썩이는 일 없게 할게요.”

이렇게 혜령은 문을 닫았다.

혜령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변한 건, 다음날이었다.

문준과 수희에게 혜령은 사랑하는 딸이었다.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기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생각인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혜령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혜령이는 귀한 첫째 딸이긴 한데, 신경 쓰이고, 평범하고, 사교성도 부족한 것 같아. 가끔 우릴 곤란하게 만들고, 음울한 구석도 있고 나중에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여보, 혜령이 말인데 너무 의욕이 없어 보여. 저래서 나중에 제 밥벌이는 어떻게 하나 몰라. 정신을 차리라고 해도 말 들을 생각을 안 하니 원.. 나는 혜령이가 가끔 이해 안 돼.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 혼자 실실 웃다가 정색하고 멍 때릴 때도 그렇고, 우리랑 얘기하다가 혼자 다른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에 병이 있나 보지.”

혜령이 들어버렸다.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버렸다. 엄마 아빠는 내 인간관계의 최전방선이었는데. 가장 단단한 지반이었는데. 지면에 닿은 발바닥 밑이 흐물흐물 물커졌다. 쭈욱 패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혜령을 끌어당기는 어떤 중력의 힘 때문에 혜령은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것 같았다. 슬펐다. 너무나도 슬플 뿐. 그 외의 감정은 기억나지 않았다.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건 좋은 것 같아. 고양이가 되니까 인간으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귀여운 동물로 대해주고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머리가 작아진 탓인가? 사람일 때 만큼 이런저런 생각들도 나지 않아. 뇌의 크기가 십 분의 일로 줄어들었을지도 몰라. 지금 이 기분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우주 한가운데에 붕 떠 있는 것 같아. 고양이로 살면 앞으로 몇 년 살 수 있는 거지? 고양이 수명은 몇 살이더라..20살? 그 즈음 되었던가? 아하. 그럼 난 이미 죽었겠다. 아니, 이미 죽은 건가? 사람으로써의 최혜령은 이제..

세상 모두가 잠들 시각 즈음, 혜령은 집을 나왔다. 그냥 그러고 싶었고, 그래야 할 것만 같았다. 삶의 끝자락에 서있다고 생각하니 못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줄곧 생각해왔는데, 나는 최후를 맞는 순간에 혼자이고 싶어. 마지막 순간에는 정적과 고독 속에 오로지 나와 함께 있고 싶어. 사람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몸으로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환경미화원이나 혹은 운 좋으면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내 뒤통리를 해주겠지. 삶이란 정말 무겁고도 가벼운 거구나.

밖은 예상대로 추웠다. 정말 더럽게 춥다고 혜령은 생각했다. 고양이가 신발을 신을 수 있을 리 없다. 혜령은 맨 발바닥에 그대로 전해져오는 냉기에 털이 꼳꼳이 섰다. 어찌나 차가운지 감각이 마비되어 발바닥에 유리조각이 박히는 줄도 몰랐다. 이대로 나는 떠돌다가 굶어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겠구나. 얼른 자

고 싶다. 눈을 감고 싶어.

하지만 이성은 동물적 본능을 이기지 못했다. 혜령은 배가 고팠다. 굶주린 탓에 후각이 더욱 곤두섰음을 느꼈다.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배를 채우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들었다. 쿼퀴한 냄새가 이끄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고양이는 영역동물인지라, 골목통이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뒤지려면 그 일대를 장악한 고양이들과 맞닥뜨려야만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먹기도 힘든 마당에 길고양이 급식소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기란 더 힘들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뻔했다. 나 이대로 정말 끝인 건가? 불이 꺼진 가게의 유리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고양이가 된 탓에 혜령은 자신의 표정이 어떠한지도 읽어낼 수 없었다.

당장 밥을 굶었어도 바로 죽을 만큼 생명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혜령은 며칠간 쪼쪼 굶고 추위를 애써 피해가며 가느다란 삶을 연명했다. 버틴지 이틀 쯤, 간식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제 또래의 사람을 마주쳤다.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이 위험한지 아닌지 분간하기도 전, 굶주림에 이기지 못한 혜령은 고양이용 음식을 모조리 먹어치웠다. 그리고 자신을 포획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짹싸게 도망쳤다. 이것이 태현과의 재회였다.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이 낯선 사람은 혜령을 부르며 먹이를 주려 했다. 혜령은 먹이만 먹고 또 도망쳤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며 끝을 보일 때쯤, 혜령은 태현을 알아보았다. 이름도 잘 기억 안나는 최혜준의 친구, 혜령에게 생존의 선택지란 무조건 태현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혜령은 태현의 집 앞에 찾아갔고, 태현과 함께 살게 되었다.

5.

찬
란
히

빛
나
기

위
해



“헤령아!”

태현은 후줄근한 반팔과 슬리퍼 차림으로 동네를 뛰어다녔다. 5월 초, 아직 낮 밤으론 쌀쌀한 계절이라 감기에 걸리기 일쑤였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때가 아니었다. 헤령이에게 괜한 화풀이를 해버렸다. 사과할 건 해야 해.

처음에도 그랬듯, 고양이가 어차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한 태현은 지난 겨울처럼 동네를 뛰어다니며 헤령을 찾았다. 음식점 뒷골목, 편의점 앞, 길가를 모두 돌아다녔다. 노란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 태현은 가쁜 숨을 내쉬며 주변을 돌아보았다. 아직 안 가본 곳이라면..

딱 한 군데, 고양이가 갈만한 장소가 떠올랐다. 공원, 태현은 공원으로 달려갔다.

태현의 예상대로 노란 고양이는 가로등 밑 벤치에 앉아 가만히 있었다. 태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툼툼툼 고양이를 향해 걸어갔다. 고양이도 태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아챘지만, 피하지 않았다. 태현은 조용히 고양이 옆에 앉았다.

“아까 화내서 미안.”

“...”

“나도 모르게 옥했어.”

“...”

“솔직히 나는 너를 잘 모르지만,”

“...”

“그리고 나는 따지고 보면 혜준이 친구고, 혜준이와 더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네 입장은 어떤지 잘 몰라. 왜냐하면 해준이 말만 들었을 땐 네가 이상하니까.”

“ ... ”

“하지만 네가 이유 없이 이렇게 되었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음, 내가 감히 너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 ... ”

“사랑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해.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서 남에게 사랑만 주는 건, 그런 건 그냥 에너지 소모에 불과하거든.”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렸다. 해령이 입을 열었다.

“그 대상이 가족이면, 그럼 나는 어떡해. 가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

“물론 그렇지..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이건 보편적으로 사회에 깔려 있는 개념이니까. 하지만 가족이라고 남과 다른 건 아니야. 야, 솔직히 나 자신 외엔 다 남인 거지 안 그래? 그게 피가 섞인 네 동생이든, 설령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든..아, 이런 말 하면 아줌마 아저씨가 나 싫어하시려나? 하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에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나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태현의 얼굴에 쓸쓸함이 묻어나왔다. 그러나 태현은 담담히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난 부모님과 쌓은 특별한 추억도 없고, 부모님은 나에게 큰 관심이 있지도 않거든. 먹고 사는 이유로 바빠서 그렇다는 거 머리로 는 이해해.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서 오랜 시간이 걸린 거지. 그래서 나는 가족이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른 것들로 채웠어. 친구들, 이웃, 동네 어른들, 선생님들.. 그런데 그렇게 채웠는데도, 공허함이 문득문득 밀려오는 거야. 처음에는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은 결핍의 구멍을 메워줄 수 없는 건가?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공허함의 정체는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남에게 아무리 사랑받고 남을 사랑하려 해도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사랑하고 말고는 네 자유고, 더군다나 가족이 너에게 상처가 된다면 잠시 거리를 두고 너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나중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네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네 마음을 우선으로 두라는 거지. 그리고 가족 외의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그것 하나로 살아가는 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어?”

며칠 후, 혜령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대로 고양이로 살며 태현의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었지만, 혜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혜령은 다시 사람으로 살고 싶어졌다. 한 사람의 몫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아직 너무나도 큰 숙제로

다가오지만, 두렵고 무서움 가득하지만, 그래도 이겨내보고 싶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인생 속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

“미안해서 어떡하지. 너 돈 필요해서 나 찾아다닌 거잖아. 나 때문에 나간 사료 값은 꼭 줄게 아, 모래값도”

“됐어, 그냥 고양이 한번 키워봤다고 생각할래. 돈이야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렇게 쉽게 돈 버는 거 아냐. 가치 있는 걸 얻으려면 고생 좀 해야지. 아직 인생은 길고 시간은 많은 걸. 아르바이트 몇 번 뛰는 것쯤이야.”

태현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었다. 사실 새 휴대폰이 너무나도 가지고 싶지만! 돈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가족이 되어주었던 노란 고양이도 더 이상 없지만. 하지만 그런 것은 뒷전으로 하고, 태현은 제 가족을 갖고 싶었다. 그래,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후로 혜령이 어떻게 되었는데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혜령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란 것, 단단해질 것이란 것, 언젠가 금빛으로 빛날 것이란 것.

금괴를 찾아라!

마침.

금괴를 찾아라!

초판 1쇄 펴낸 날 2024년 12월 15일

글 신서라

그림 신서라

편집 신서라

디자인 신서라

펴낸 곳 황금출판

주소 서울시 성북구

E-mail seorashin@gmail.com

ISBN 0000-00000000000



값 8,500



20241215

ISBN 0000-0000000000

